| 불자 세상보기 |

국가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연휴기간 관람한 영화 '남한산성'
내내 답답함과 분노가 일렁였다

영화서 청나라 앞잡이의 한마디
"조선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는 정치학 난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서
저자는 정치적 마음 수행을 강조
수행을 통해 정치 바로 세워야

구름 사이로 기웃기웃 보이는 한가위 달이 밝고 크신 모습이 아니다. 열흘의 긴 휴일이 주어 졌지만 어떤 예비적 공포에 싸여 찜찜한 불안이 서린 연휴기간이었다. 마치 온 몸에 미열을 느끼는 기분이다.

북한은 또 다른 신형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고, 트럼프 미대통령은 '지금은 폭풍전야의 고요' 라고 하면서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모두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관계에서 나오는 고통들이다.

휴일 기간에 영화 '남한산성' 을 봤다. 관람 내내 답답한 마음과 분노가 일렁거렸다. 그 분노는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왕과 위정자에 대한 분노이다.

임진왜란 때 왕과 위정자에 느낀 분노가 새삼 기억난다. 그렇게 부끄럽게 왜란을 겪은 조선이 왜 지속되어야 하는가? 새로운 개국의 기운은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 국가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어난다.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아래 만들어진 만리장성에 얼마나 많은 민중들의 슬픔과 비극이 쌓여 있을까. 그 만리장성이 지금은 사람들을 감탄케 하는 관광상품이 되어 있으니 이를 어쩌랴.

'국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정치학의 제일 큰 난제이다. 국가의 문제는 우리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실천적인 물음이다. 국가가 도덕적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또한 국가 권력의 행사는 어떻게 정당하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물음이다. 그러나 오호 통재라. 역사상 도덕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 국가가 얼마나 있었던가?

'남한산성' 에서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제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대장장이 '날쇠' 이다. 명분과 절의를 강조하는 잘난 정승은 '날쇠' 에게 남한산성의 임금을 구하라는 칙명을 성 밖의 근왕군에게 전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긴다.

그러나 오히려 근왕병 지휘관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는다. '날쇠' 가 죽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말했듯 벼슬아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나라 군의 통역을 맡고 있는 정명수는 조선 사람이 왜 청나라의 앞잡이가 됐느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 글을 쓰면서 오래 전에 읽었던, 감동 받아 신입생의 '정치 교육론' 에 교재로 썼던 책 파커 파머(Parker Palmer)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의 내용이 생각난다. 민주주의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저자의 문제인식이다. 파머는 내면과 외면을 분리시키는 생각이 오늘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뿌리라고 보면서 일종의 정치적 마음수행을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자아와 세계라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불리는 중심부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 인간적으로 행동할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기백 이상의 것을 뜻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질 때 체념하지 않고 자아의 중심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당위와 현실 사이의 비극적 간극을 가슴에 품고 견디는 '비통한 자들(the broken hearted)' 이 되면서도 '부서져 열리는(broken open)' 마음이 요구된다. 그래서 선악의 구도가 명확하지 않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 풍경을 응시하면서 그 '애매함과 긴장' 을 끌어안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공공적 책임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리라.

파머는 붓다의 정치철학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공부를 하는 수행자가 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 마지막 영화 장면, 살아남은 '날쇠' 는 풍구를 돌리면서 쇠를 달구고 있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선거

길고도 험했던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일단락됐다. 선거는 끝남과 동시에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누군가는 환희를, 또 다른 누군가는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상 아쉬움을 남긴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의 고유한 특성은 차치하고, 이번 선거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다. 조금 더 나아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10월 12일 투표가 치러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 후보를 비방하는 대중과 이를 제지하는 종무원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경찰병력. 이 모습만으로도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했지만 호법부 스님과 선원수좌회 스님이 한 차례 주먹을 주고받는 촌극도 빚어졌다. 수좌회 스님은 경찰벽을 뚫고 투표장 가까이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에게 연행될 뻔한 일도 겪었다. 현장에는 서로 주고받는 욕설도 난무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욕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너나 할 것 없이 '새끼' 를 외쳤다. 가만히 서있던 사람이 인신공격을 받기도 했고, 시비를 거는 일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어디 투표 현장만의 문제인가. 선거 전날까지 각 후보 선거대책위와 교계 단체들은 잇따른 고소고발과 비방 성명 등으로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게다가 후보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불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대중이 그토록 바랐던 종책선거도 무산됐다. 각 후보 측은 여법한 종단운영을 위한 새로운 종책과제들을 앞다투어 홍보하면서 종책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서로 종책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명절 연휴로 인한 빠듯한 일정에도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후보 간 합의가 결렬됐다.

여기에는 미흡한 선거법 개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중앙종회의 잘못이 크다. 선거법상 종책토론회는 강제조항이 아닌 재량권으로 명시돼 열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이미 몇 차례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되며 드러났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법이 보완되지 않은 것은 선거 이후 종회의원들의 체감온도가 떨어져 뒷전으로 미뤄버린 게 아닐까. 94년 종단개혁 이후 현행 선거제도가 정착됐음에도 20년이 훌쩍 넘도록 종책토론회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선거과정을 지켜보며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었다. 특정 개인이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뜻은 아니다. 얽히고설킨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개개인 모두 때로는 엄석대이기도, 한병태이기도 했다. 기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옳다' '그르다' 모순 대립하는 명제가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사견이기에 둘 다 버리라고 중도를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과는 멀어져버린 것 같다.

선거는 끝났다. 다만 앞으로 풀어 나가야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을 뿐이다. 누군가의 숙제가 아닌 우리들의 숙제. 불제자들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계율로, 바른 견해로, 이익으로 화합하라는 육화(六和) 정신을 되새겨 숙제를 풀어가는 공동체로 다시금 뭉칠 때다.

社 說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에 바란다

치열했던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끝났다. 10월 12일 진행된 선거 결과 前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319표 중 234표를 획득해 73.4%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설정 스님은 종단 안팎으로 존경 받는 지도자이다. 평생을 간화선 수행에 매진한 수좌이면서 제11대 중앙종회의장과 수덕사 주지 등을 역임했던 이(理)·사(事)를 두루 거친 선지식이기도 하다.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인준만 받게 되면 설정 스님은 10월 31일부터 신임 총무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선거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이다. 스님 스스로도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는 빠르게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또한 종단 안팎의 불협화음 역시 어떻게 풀어갈지도 숙제다. 이미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만, 모든 불교시민단체들과 반대 측 스님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면 어떤 지혜로운 포용책을 가질 지도 기대를 모은다.

종단 선거제도를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매번 선거에서 비방과 금품살포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직선제든 간선제든 선거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자인구 300만 명 감소와 탈종교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단 종책과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는 점이다. 종단 안팎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계종을 발전시키는 지혜를 신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대중들에게 내려주길 기대한다.

'부처님오신날' 명칭 변경 환영한다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이 '부처님오신날' 로 변경됐다. 정부는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42년간 불교계가 요구해 온 '부처님오신날' 명칭변경을 받아들였다.

'석가탄신일' 은 1975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 이면에는 불교현대사의 아픔이 서려있다. 1949년 정부수립후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은 1960년대 이르러서야 이뤄졌다. 기독교 정권의 종교편향 속에서 한국전통 종교인 불교의 처지가 드러난 것이다. '성탄절' 의 물리적 균형성에 치우쳐 '석탄일' , 그리고 '석가탄신일' 로 불린 것이다.

여기에 '석가탄신일' 명칭 자체가 부처님오신날의 정확한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온 뜻을 '석가' 가 탄생한 날이란 의미로 국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교계, 특히 불교언론에서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이란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은 부처님오신날의 참 의미를 알리고자 함이었다.

부처님오신날의 공식 명칭 변경은 이제 불자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함이다.

부처님은 이 땅에서 인간 개개인이 부처답게 살 것을 강조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무명에 잠긴 자신을 스스로 깨우치고,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말했다.

경쟁과 욕망추구의 현대사회에서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온 참 의미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의 공식 명칭을 기해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행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창종 4주년 기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창종4주년기념법회 및 종정 이.취임식을 봉행함을 제방에 사룁니다.

종 정 : 예호당 법경
원로의장 : 정인 원 로 : 지선.혜원.월현.정광
총무원장 : 법성 종회의장 : 법륜
문화원장 : 혜관 포교원장 : 보덕 호법원장 : 도원
비구니원장 : 진언
고시위원 : 정인.혜관.정광.도원.법원
종회의원 : 법경.정인.월현.정광.법성.법륜.혜관.보덕.법원.도원.진언
종회임원 : 법정.정운.지산.법안.해운.도현.무상.향적.청담
법인.정인.해산.법일.성본.고산.도경.황산.청인
원경.법진.지호.도선.공태건.광명화

■ 일 시 : 2017년 10월 31일 (음력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32-13 성원사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10-4호 등기번호 001856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은 교육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설법하신 법문을 모아놓은 경장과 수행자가 지켜야할 율장과 부처님의 대를 이어 깨달음을 얻은 조사 스님들이 모아놓은 논장 경.율.논 삼장인 불.법.승 경전과 범음범패를 교육하는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본 종단과 뜻을 함께 하고져하는 재방의 뜻있는 대덕 큰스님과 종도 여러분을 모시려고 하오니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함판, 사찰사진
■ 총 무 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 문 의 : 전화 053)322-0567
H·P 010-6537-0567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 대구시 북구 작원길 9 전화 053)322-0567 / 010-6537-0567